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 도 자 료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포털

5월 4일(목) **14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7. 5 4. (목)	담당부서	산업부 미주통상과
담당과장	박찬기 미주통상과장(044-203-5650)	담 당 자	최성준 서기관(044-203-5651)

산업부, 대미 통상 전문가 간담회 개최

- 기존 국장급 TF를 제2차관 주재 『대미통상현안대응 TF』로 격상, 집중 운영하기로 -

- 한미 FTA 재협상 등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 시나리오별로 준비에 만전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주요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전문가와 대미 통상 전문가간담회를 갖고 최근의 대미통상 동향 및 향후 대응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 모인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이 불확실한 방향으로 급변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우리 정부와 민간은 객관적인 사실과 분석에 입각해 차분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회의에서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지난 월 한미 자유무역협정 주년에 연구기관이 발표처럼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양국의 교역 및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등에 상호 호혜적으로 이바지한 것은 각종 분석과 데이터가 증명한다고 강조하고

한국은 그간의 적극적 자유무역협정 정책을 통해 미국뿐 아니라 유럽연합 중국 등 개국 개 자유무역협정에 개방된 시장으로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없다면 미국기업들은 자동차 등 제조업 시장과 서비스 시장에서 유럽연합 등 경쟁국에 비해 경쟁 우위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규 산업연구원 원장은

최근 언론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종료시 우리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나 미국의 대한수출은 이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미 자유무역협정 종료는 미국에도 손해를 초래할 것이라 전망하고

일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전의 세계무역기구 가중평균세율은 한국 이 미국 보다 높아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미측은 상대적으로 더 큰 관세인하 혜택을 보았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미국의 관세절감액 년 억 달러 이 한국 년 억 달러 보다 배 이상 높다고 말했다

김창길 농촌경제연구원 원장은

농축산물 분야에서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상당부분 수혜를 얻었다고 강조하고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경쟁국 대비 미국산 쇠고기 낙농품 오렌지 등의 한국시장 진출을 크게 확대시켜 왔음을 지적했다

안세영 서강대 교수는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적 무역 조치들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도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등 모든 가능성에 준비는 하되 미국의 최대 관심사항인 무역수지 불균형의 해소방안에 신경을 써야할 것이라 지적했다

안덕근 서울대 교수는

최근의 불확실한 대미 통상환경 하에서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대내외적으로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득실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우리의 대응 전략을 마련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에 **주 장관**은 그간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동위 등 통상채널을 통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미국 신정부 출범 직후 발족한『대미통상협의회』를 통해 산관학 합동으로 적극 대응방안을 준비해 왔음을 말하고

특히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포함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면밀히 대비해 왔으므로 지속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국익극대화의 관점에서 **철저히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국내의 통상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민 관이 긴밀히 협의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야함을 강조했다

산업부는 최근의 급변하는 대미통상 환경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을 위해 기존 국장급으로 운영 중이던『**미(美)무역적자분석**』,『**철강수입규제**』 특별팀(TF)을 **제 차관 체제로 격상**하고 개 특별팀 외에도『**미(美) 무역협정분석 대응 특별팀(TF)**』도 신설해 집중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 행사 사진자료는 오후 3시경 별도 배포예정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 최성준 서기관 (☎044-203-565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